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FGI조사 결과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책임자 오 세 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기 획 신 형 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최 종 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연구과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FGI조사 결과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 조사는 201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실시된 좌담회이다. 좌담회는 정성조사로서 정량조사와 달리 적은 사람이 참여해서 진행하기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과 평범한 일상 속의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좌담회는 소위 운동권만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1987년 6월항쟁 상황도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였으나 구경만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비난을 한 사람도 많다. 시간이 30년이나 지났지만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당시 항쟁의 주역인 민주화운동세대로 한정했다. 그 내부에서 연령과 성별은 물론이고 고졸, 대졸, 데모 참여자, 비참여자를 안배했다. 내용을 분석하여보니 다음과 같은 점이 두드러진다.

(1) 30년 만에 놀랍게 변한 부모의 반응

30년 전 6월 항쟁 때는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찍히면 취직도 못한다”, “빨갱이가 하는 짓이다”, “시집도 못간다” 라고 야단을 맞고 데모하지 말라고 금지당했었다. 물론 대학생들은 그런 부모의 말을 다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당시 대학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대가 이제 부모가 되어 촛불집회 나가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에게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라” 했다는 것이다. 감동적인 얘기였다. 물론 가족이 함께 나간 경우도 많았다. 30년이 흘러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한국전쟁을 겪고 반공의식에 투철해 정부에 저항하는 집회와 행진을 빨갱이짓이라고 비난하고 금지했던 부모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6월항쟁을 겪고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간직한 세대가 부모가 되어 이제 사회의식에 눈뜨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평화로운 집회’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다.

(2) 방어적 폭력에 대한 회고

6월항쟁 당시에는 순응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경찰과 사복들의 위세에 눌려 학생과 노동자들은 일체 사회적 정치적 발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누군가 활로를 조직적으로 뚫지 않으면 정부에 저항하는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이 그 선봉의 역할을 맡았다.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정부대를 밀어내는 방어적 폭력이 불가피했다. 전국적으로 민심의 호응을 받은 학생과 시민의 저항에 비로소 전두환정권은 물리적 탄압 이외의 방법을 고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강제한 방어적 폭력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불가피했다고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런 상황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도 명박산성이 등장했고 낮에는 용인하던 집회를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 무력으로 진압했다. 물대포로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번 촛불집회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특별했지만, 공권력이 압도적 민심에 놀라 불가피하게 무력진압을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늘상 시민의 저항권을 무시하고 폭력적 진압을 일삼는 것은 기득권세력의 일상적 행동양식이라는 사실이다. 학생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는 과거에도 문화공연을 필두로 해 평화적 집회였다. 건대에서나 연대에서나 포위 공격을 통해 학생을 빨갱이로 몰고 공안정국을 조장한 공권력이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3) 386세대가 기억하는 세대형성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

386세대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은 6월 항쟁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항쟁과 학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 세대가 중고생 때 일어났고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진실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점은 시민의식조사와 다른 내용이지만 여론조사와 달리 함께 얘기하는 좌담회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났다. 그 승리로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조금이나마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노동자투쟁도 이어졌다. 이후 야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은 국민의 승리였다. 이 세대의 시대정신은 의심할 수 없이 민주화다.

(4) 청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지금도 386세대는 일상 속에서 한국사회 권위주의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역사적인 이번 촛불집회에도 가족과 함께 적극 참여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정치세력과 기득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386세대가 세대간 가교의 역할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특히 취업난과 양극화에 힘들어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정치인에게도 요구하겠다고 한다. 사실 6월 항쟁 때도 벡타이부대가 큰 힘이 되었다. 이제 386세대의 반 이상이 50대가 되었지만 386세대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평균보다 진보적이다. 앞으로 남은 정치사회적 역할은 끈대가 되지 않고 토론도 하고 노인문화도 만들고 합리적인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제대로 된 복지국가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청년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당장 내년에는 계류중인 청년기본법부터 국회를 압박해 통과시켜야 한다.

(5) 386정치인들은 실력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386정치인들은 개혁적 성향이고 탈권위주의적이지만, 크게 동세대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정치입문 과정이 카리스마적 야당 총재가 발탁하는 방식이었고, 이후 당내민주화에 앞장섰거나 한 국사회의 개혁과 민생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선의원이 되는 것보다 공부하고, 현장을 찾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을 요구한다. 특히 민심의 도움으로 야당이 집권한 지금은 과거 미숙했던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수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벌였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과제이다. 거기 안주하지 말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률과 세금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로를 찾아서 2017년 체제가 수립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그룹을 가지고 비교했다면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비교되는 요소가 있었겠지만 후일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두 그룹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역사적인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적은 예산을 쪼개어 시민의식조사와 좌담회(FGI)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과제의 일부 역할을 맡게 된 것이 큰 영광이었다.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해안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이 감격스럽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그리고 386세대를 좀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책임연구자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목 차

제1장

FGI조사 취지 및 설계

- 13 1. FGI 조사의 취지
- 14 2. FGI 조사의 설계

제2장

FGI조사 결과요약

- 17 1. 전체 요약

제3장

FGI조사 결과분석

- 21 1. 6월항쟁에 대한 기억
- 26 2. 6월항쟁의 의의
- 29 3. 87년 대통령선거의 양상과 이후 정권교체 30년
- 31 4. 촛불집회 평가
- 33 5. 민주화운동세대에 대한 평가



제4장

결론

37 1. 결론과 제언

부록

39 FGI가이드라인



제1장

FGI조사 취지 및 설계



FGI조사 취지 및 설계

1 ■ FGI 조사의 취지

- 이 조사는 201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실시된 시민의식종합조사의 보완조사로서 추진되었다.
- 국민의식 변화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시민의식조사는 전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정도와 그 변화를 평균화하여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집단, 세대 등 미시적 단위에서의 변화상을 풍부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를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386세대(현재 40-50대) 소그룹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386세대는 6월민주항쟁 및 촛불항쟁에 모두 참여가능했던 세대이다. 이들의 양대항쟁 참여경험 및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게 기억으로 공유(혹은 갈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의 시대적 변화 및 가족세대를 통한 이전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이 조사의 목표이다.
- 이상의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정성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 및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경험적으로 조사한다”는 애초 사업의 목표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 FGI 조사의 설계

○ 386세대는 남성그룹과 여성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386세대라고 하더라도 6월항쟁을 어떤 시기에 겪느냐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출신지역에 따라 다른 관점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386세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연령(80년대 초반 학번 vs 후반학번), 학력(대졸자 vs 고졸자), 출신지역 등을 세분화하여 그룹을 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자세한 세부설계는 <표1> 참조.

○ FGI조사는 2017년 11월 9일(남성그룹), 10일(여성그룹) 이틀간 각각 2시간동안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시간에 이루어졌다. 조사를 위한 참여자 모집 및 장소 대여 등은 리서치 플러스에서 담당하였다.

구분	1그룹	2그룹
성	• 남성	• 여성
연령	• 40대 4명, 50대 3명	• 40대 4명, 50대 4명
인원수	• 7명	• 8명
직업	• 직장인 • 자영업	• 주부 • 직장인
	•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 5:3 안배	
정치성향	• 대학 진학자 중 데모 경험자 2명 이내로 제한	
	• 대학 진학자 중 80년대 전반부와 후반부 절반 안배	
	• 출신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절반 안배	



제2장

FGI조사 결과요약



FGI조사 결과요약

1 ■ 전체 요약

1) 6월 항쟁에 대한 기억

- 좌담회 참석자들은 당시 고교 3학년부터 대학생, 일찍 취업한 직장인, 일찍 결혼한 주부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생과 시내에 있던 직장인은 현장을 목격했다. 종교 기관을 통해 실상을 알기도 했다.
- 최류탄을 직격으로 쏘고, 백골단이 학교 안까지 진입함. 시내에서는 욕하는 자와 박수치는 자가 엇갈렸다. 넥타이부대도 있었지만, 방관자도 있었다.
- 시민은 물론 대자보가 종종 붙는 대학에서도 5공 군사정권의 실상에 대해 잘 몰랐다고 했다.
- 해산에 맞선 방어적 폭력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보도하는 정부의 의도적 프레임이 조장했다.
- 대부분의 부모들은 데모하는 학생을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자식의 참여를 금지했다

2) 6월 항쟁의 의의

- 이후 야당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은 국민의 승리였다
- 6월 항쟁의 승리는 7,8,9월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졌고 사회를 변화시켰다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민주화운동세대를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 당시 야당과 재야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비판했고 학생(운동)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봤다

3) 87년 대선과 정권교체의 역사

- 양김의 욕심 때문에 민주화를 지체시켰다. 당시 민도와 지역감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 민주정부 10년은 남북관계와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미숙했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IMF극복은 잘 했으나 실력이 없었던지 자만했다.
- 보수정부 10년은 참담하다. MB는 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복지예산은 줄였다. 뉴타운과 4대강 등 자기욕심대로 했다. 부정의 온상이었다. 무능력한 꼭두각시였던 박근혜에게 국민이 배신 당한 것이다. 지우고 싶은 과거다. 여성이라 의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럽다.

4) 촛불집회 평가

- 가족적이고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였다. 과거의 희생이 있어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다.
- 어린 학생들이 어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정치적으로 실제로 되면 좋겠다.
- 자식들이 간다 하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했다. 가족이 같이 나갔다. 간다면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물어보겠다. 무작정 가는 것보다 그에 관해 얘기하는게 중요하다.

5) 민주화운동세대에 대한 평가

- 지금도 민주화운동세대는 권위적인 세상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 6월 항쟁 때도 넥타이부대가 있어서 큰 힘이 됐듯이, 50대가 됐지만 힘들어하는 자식세대를 도와주면 좋겠다.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돕는 역할은 할 수 있다.
- 세대간 갭이 너무 큰데 우리는 꼰대가 되지 말고 세대간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노인들이 토론도 하고 노인문화도 만들어야 한다. 386정치인에게 요구해야 할 일이다.
- 자기 세대를 형성한 대표적 사건에 대하여 앞선 시민의식조사 결과(p.67)와는 다르게 6월 항쟁이 결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제3장

FGI조사 결과분석



FGI조사 결과분석

1 ■ 6월항쟁에 대한 기억

○ 민주화운동세대 각자의 6월항쟁 참여에 대한 기억

- 고등학생인 경우에 신정동에 살아 직접 데모를 보지 못했고 당연히 참가는 안해봤고 뉴스는 들어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당시 대학1학년으로서 휴강 많은 것도 좋았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거리시위가 있을 때 거리에 나와보면 해방군 같았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대학 4학년이라 적극 참여하지 못했으나 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부모가 공무원이고 보수적이라 적극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학교가면 매일 데모가 있었고 전경들이 학교로 밀고 들어오니 휩쓸렸다 빠지고 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당시 대학 1학년으로서 너무 어려서 정치도 모르고 데모도 주로 구경만 했지만 명동에서 시위에 참여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대학 2학년이었다. 전경들이 학교에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라 데모 안하면 이상한 일이었다. 6.29 전에 가두에도 몇 번 나갔지만 많이는 안했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당시 대학에 다니다 불가피하게 졸업도 못한 채 일찍 직장에 취직했다. 공무원으로서 퇴근도 못하고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진보성향의 교회에 나가 상황을 알았다. 그러나 거리 시위에 나서지는 못했다. 당시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데모는 좀 낭만적이라 생각했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고교 졸업 후 증권사에 초년병으로 을지로에 근무할 때였다. 회사도 노조를 만들고 있는 분위기였다. 불만이 많은 약간의 열악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과 벡타이부대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조심스레 참여했다(49세 여성, 고졸). 나름 피 끓는 대학 4학년이었는데 몇 번 나갔지만, 졸업 반으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던 것 같아 마음 속에 남아 있다(51세 여성, 대졸).
- 고교 3학년생으로 새벽같이 학교가고 늦게 야자해서 직접 보지 못했다. 버스 안에서 최루탄 냄새나서 내려서 도망가본 정도다. 친구들도 관심없었다(47세 여성, 고졸). 장안동에 있는 직장에 다녀 참

가 기회가 없었다. 큰 관심도 없었다(54세 여성, 고졸B).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데모는 많이 봤지만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이 극우셔서 내내 세뇌를 받았다(52세 여성, 대졸). 대학교 1학년이었고 광주에 있어서 최루탄 많이 마셨지만 친구들 사귀고 술에 빠져 있어서 하지는 않았다. 부모님도 못하게 했고 굉장히 무서웠다(49세 여성, 대졸). 결혼해 건대 옆에 살았는데 애가 있어 문도 못열고 살았다. 경찰서도 끌려 가보고 해서 TV로만 봤다.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빨갱이가 들어가서 그런다고 했다. 그렇구나 했다(54세 여성, 고졸A). 고3이었지만 천주교 주보에서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시청 나가자 해서 지금 어느 때인데 나가냐 했었다. 나간 애들도 있다(48세 여성, 대졸).

- 고등학생이었거나 시 외곽에 살거나 직장이 있으면 6월 항쟁을 직접 겪기 어려웠다.
- 대학생인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데모를 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면 선배나 친구들을 따라 시내에도 나가보게 되고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민의 참여가 많았지만 특히 당시 대학생들은 6월 항쟁의 선봉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하였다.
-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심각한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외에도 종교 기관 등에서 진실을 접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신분의 제약 때문에 모두가 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그런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분도 많았다.
- 여성은 주변의 정치적 관심도 적고 부모의 제재도 강해 자기 검열이 심했고, 대학생인 경우도 참여가 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 여성은 대부분 직업이 주부라 따로 표시하지 않았음

○ 당시 6월 항쟁의 특징적 양상

- 당시 최루탄은 직격탄으로 쏘았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버스가 서있을 때 대학생들이 타서 전단을 뿌리면 1/3은 욱했다. 다른 몇분은 박수쳐주고 수고하라고 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내 친구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 같은 공간에 전경으로 있었더라. 전경도 우리랑 똑같은 애들이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공무원들은 셔터 내리고 최루가스 들어오면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사복경찰이 와서 수색하고 데모에 참여는 못하고 안타까웠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연대 쪽에서 전경과 시위대가 싸우다가 좀 쉬었다 하자고 담배피고 물먹고 또 데모하던 기억이 난다. 백골단이 판을 뒤집었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폭력적인 대치는 순간이고, 백골단은 신호가 있으면 학교 안까지 쪽 들어왔다. 전경들은 방향 가리키며 집에 가라고 했다. 대치하는데 등교하는 애들도 있고 술먹는 애들도 있고 그랬다(49세 남성, 대

졸, 회사원B).

- 의지가 있는 애들이 데모를 하는구나. 백골단은 저렇게 야비하게 살아도 되나? 비겁한 사람은 싫었다. 사회의 부조리를 느끼고 있을 때 항쟁이 일어나 참여했다(49세 여성, 고졸).
- 데모는 대학생 만의 문화라고 생각했다.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높은 잣대를 요구했고 자신은 빠지는 이유로 합리화했다(48세 여성, 대졸).
- 방관자인 내가 최류탄 피해다니라 제일 큰 피해자라고 봤다(52세 여성, 대졸).
- 나는 장래 걱정해 못하는데 적극적인 학생들은 잡혀가지 않았으면 했다(51세 여성, 대졸).
- 특정 동아리와 담배 피는 여자들이, 정치학과나 법대생만 데모한다고 생각했다. 전경도 너무 싫었다(49세 여성, 대졸).
- 대학생은 이념이나 생각이 있지만, 의무 복무인 전경들이 너무 불쌍했다(54세 여성, 고졸B).
- 데모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기도했다. 전경까지 둘다 불쌍하다(47세 여성, 고졸).

○ 당시 5공화국 전두환정권에 대한 평가

- 군부독재다 해도 와닿지 않았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10.26에 나라 망하는 줄 알았고, 대학에 가서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서야 군사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 A). 친구나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다. 왜 데모하며 고생하나 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독재보다는 안보 쪽으로 심각하지는 않고 정치가 소용돌이치겠다 생각함(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호기심도 있고 이념서클에 선배들이 데려가려 해서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본인의 힘으로 대통령된 독재정권이니 부정적이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 나중에 신부가 된 친구가 준 짜라시 보고 독재정권이라는 걸 알았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대자보를 통해 보고 사촌 언니 오빠에게도 들었다. 전두환은 부정적이었다. 언론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다(48세 여성, 대졸). 518도 겪었고, 사람이 실종되고 독재라고 생각했다(49세 여성, 대졸). 친구 아버지가 김대중씨 관련된 사람인데 5공 들어와 감시 때문에 집에 못오셨다(52세 여성, 대졸).
- 전두환이 깡패 삼청교육대 잡아간 것은 잘했다고 어른들이 그랬다. 어른들은 잡혀가선 안될 사람이 잡혀갔다는 것은 몰랐다(51세 여성, 대졸). 학생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걸 보고 폭력이 정당화되는구나 생각했다. 노조도 감시당했다. 무서웠다. 어려선 박정희가 잘한 사람으로 알았다(49세 여성, 고졸).

- 대학에 가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랬고, 대학에 진학했어도 사회과학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정권의 실상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다. 유인물과 대자보가 진실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 경우에 따라서 종교 기관 등에서 진실을 알게 되거나 대학에서 사회과학 학습을 한 경우에 군부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다.
- 일상 시기에 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군부정권이 강압적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속으로 반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 교육과 언론을 포함한 강압적 상황 때문에 학생들도 진실을 잘 알지 못했다.
- 8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은 개인의 장래와 불행한 조국의 현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젊은이들을 강제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평생 짐으로 남아있다.
- 남성들이 시위 현장이나 정권, 언론, 종교기관, 전경, 이념싸움 등 사회현상과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심리적 묘사를 많이 했다. 최루탄의 희생자와 전경을 불쌍하게 생각했다거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회한, 방관자인 자신이 최루탄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라는 생각 등.

○ 폭력에 대한 생각

- 87년에는 정부 쪽에서 프레임을 만들려고 돌과 최루가스라는 상황이 연달아 이루어지게 했던 것 같다. 의식적인 도발을 통해 방어적 폭력을 이끌어내고 촬영하고 보도하고 그랬던 것 같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청와대고 광화문이고 다 개방하면 폭력이 없을텐데 방어적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권이 기획하고 조장한다. 자연발생적인 폭력은 거의 없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87년 6월에는 20일 지나니 추가 기울어 축제 분위기로 갔었다. 격렬한 시위가 아니라 하숙집에 모여 밥도 먹고 정보도 교환하고 저녁에 다시 나가는 양상이 계속됐다. 국가에서 자극하니 그렇지만 보도 불력 깨고 화염병 밑으로 던진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했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폭력은 무조건 안좋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일부 외에는 폭력은 없을 것 같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사람은 상대적이라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54세 여성, 고졸B). 87년에는 비폭력으로 나갔어도 무조건 최루탄을 쐈기 때문에 방어적 폭력이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49세 여성, 대졸). 이웃이 쓰러지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 있겠나?(47세 여성, 고졸).
- 폭력은 자제해야 한다. 최근 학생보다 시민이 주체가 되니 학생들 자제시켰다. 87년에는 빨갱이라는 유언비어가 먹힌 때니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몰고갈 수 없다(51세 여성, 대졸).

- 여성도 방어적 폭력을 긍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권의 의식적 도발로 생각했다.
- 폭력에 대해서는 삼가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 자식의 데모 참가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 아버지는 데모 진압하는 책임자였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잡힌 친구들 단순가담이라고 빼주셨다. 저한테는 가타부타 얘기 안하셨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니 어머니가 절대 하지 말라 했다. 자기 자식이 데모하는 것은 안좋아하셨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아버지는 TV를 보다 ‘저 학생놈의 새끼들’, ‘빨갱이’ 같은 스토리가 있었다. 저보고는 절대 하지 말라 하셨다.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셨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어머니는 태극기셨다. 무조건 1번만 찍으셨다. 해 떨어지면 싸돌아다니지 말고 들어와라. 시청, 명동, 신촌 이런데 가지 말라고 하셨고, 맨날 뉴스 나오면 학생들 욕을 하셨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어머니는 다 비슷하다. 가끔 가방도 열어보셨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아버지는 전두환 욕을 했고, 어머니는 전혀 관심이 없어 데모하는 학생들 욕을 했다.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그러나 내게는 절대 데모하지 말라고 했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아버님은 퇴직 후에도 형편이 어려워 일을 하셨는데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 데모를 안좋아하셨다. 기술자셔서 정치나 독재, 나라까지는 생각 안하셨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부모님은 세상이 부조리한 게 맞지만 너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셨다. 여자가 빨갱이라 찍히면 시집도 못간다(49세 여성, 고졸).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매체를 통해 학생들을 너무 나쁘게 보셔서 절대 하지 말라고 나중에 취직도 못하고 시집도 못간다고 하심(51세 여성, 대졸).
-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고 참여할 거라고 생각 안하셔서 얘기 안 하셨다(54세 여성, 고졸B). 하리라고 생각을 안하셔서 얘기 안했다(49세 여성, 대졸). 나는 고3 때니, 언니들 불러 조신해라. 그런곳에 가지마라. 데모에 관심 갖지 말라(47세 여성, 고졸). 절대로 하면 안되고, 할거면 데모에 안나가는 주동자 해라(52세 여성, 대졸). 고3 때라 당연히 얘기 안하셨다(48세 여성, 대졸).

- 대부분의 부모님은 정부 편이었고 민주주의나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 욕했고, 자식의 데모 참여를 강력히 금지했다.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
- 드물게 정부를 비판하는 부모도 있었지만 자식이 데모에 참가하는 문제에는 예외없이 취직도 못하고 시집도 못간다고 강력하게 막았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금지 행위도 하지 않으셨다. 부모가 지방에 있고 서울의 대학에 자녀가 다니는 경우에는 걱정이 돼서 내려오거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 당시 고등학생이거나 여성인 경우 아예 데모에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안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한 경우가 많다.

2 ■ 6월항쟁의 의미

○ 어떤 의미? 어떤 의미?

-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으니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된거다. 의미가 크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국민의 승리다. 그것 하나로도 큰 의미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희생 덕분에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민주주의의 꽃인 죽음을 시발점으로 해서 정치의 큰 디딤돌이 됐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6월항쟁의 성과물이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연결됐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체육관에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큰 성과이고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 의미는 대단히 크다. 6월항쟁이 없었다면 암울하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자기 세대의 가장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은?

- 이한열(47세 남성, 고졸, 자영업)(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박종철(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 직선제(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6.29선언(47세 남성, 고졸, 자영업)(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6월항쟁(51세 남성, 대졸, 교육직)(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87년 대선 여의도유세(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6.15 방북(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미문화원사건(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5.3인천항쟁(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7명 중 6명은 6월항쟁을 언급했다. 한명은 6.15 방북만 얘기함.

- 누구도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았고 강도에 편차는 있었으나 의미가 크다고 했다.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한명이 언급했다.
- 거의 다 6월항쟁이 세대형성 사건이라 함. 5.18 광주를 언급하지 않아 특이함. 이 세대에게 80년 광주는 진실을 알면 트라우마였지만, 직접 경험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 집단에 호남 출신이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보수야당에 대한 평가

- 힘과 세력이 약해도 김대중 김영삼 중심의 야당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고 있으니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소식이 들렸다. 최선 다했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두분이 민주주의의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나 대통령 된 후에는 과도 많았지만 야당정치하며 쌓은 공도 무시할 수 없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군 출신에 비해 양김은 연설도 호소력있었고 인물이구나 생각했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야당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노태우 주도의 삼당합당이 특히 그렇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6월항쟁에서는 역할이 있었지만 이후 권력욕 때문에 분열해서 시간을 너무 허비했고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가 났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DJ, YS같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지지자를 결집하는 역할했다(48세 여성, 대졸).

○ 재야에 대한 평가

- 재야는 폭력적이고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한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탄압을 받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한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존경스럽다. 재야는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채롭다. 긍정적이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재야가 민주화운동의 뿌리다. 6월항쟁까지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삼김이 분열해서 노태우정권을 창출한 건 과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재야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 밖에 없던 시절이라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상징성은 인정해야 한다(48세 여성, 대졸). 폭력 앞에 노력했고 탄압도 많이 받았을 것이나 실제 결과는 학생과 시민들이 한 것 같다(49세 여성, 고졸).

○ 학생에 대한 평가

- 학생운동하는 선배는 잘 생기고 말 잘하고 멋있었다. 학생들이 총대를 매지 않았으면 어떤 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학생운동이 역사적으로 긍정적 평가 받을 수 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학생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계속 역할을 했고, 현실부정보다도 이상을 추구해왔다.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학생들이 비판적 안목을 가졌고 이것이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초였다. 긍정적이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당시 대학생 수가 많지 않았다. 학생은 엘리트의식이랄까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다. 이게 6월항쟁에 헌신하는 동기를 부여했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지금 정부 요직도 학생운동한 사람들이 하는걸 보면 뭐든 하나에 미치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학생이 공부해야지. 그러나 학생이 데모에 참여하면 효과가 좋다. 6월항쟁도 그랬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학생운동해도 앞에 나서서 회장했으면 정치라도 하지, 내 사촌동생은 학교도 잘리고 같이 운동했던 아내랑 인생을 망친 케이스다(49세 여성, 대졸). 남편이 학생운동한 것을 결혼하고 알았는데 당시 열심히 했던 운동가들이 자기 식구, 처지 생각하는 걸 보고 속았다 하더라(52세 여성, 대졸).

- 보수야당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6월항쟁까지의 공을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분열로 인한 대선 패배와 민주화의 지체의 책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 재야에 대해서는 소수지만 극단적이라는 기억과 탄압을 이겨내 존경한다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나 야당의 분열로 야기된 대선 패배와 민주화의 지체에 대해 야당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삼당합당과 같은 일부 잘못된 기억도 있으나 80년이나 87년에는 실제로 이후 대선에서 재야도 자기 선호에 따라 선거운동에 나서기에 대중의 기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리고 대중은 삼당합당을 한 김영삼과 하지 않은 김대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가 분열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야당과 재야를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집단'이 아니라 '항상 분열하는 집단'이라고 재정의하는 의도된 이슈전환 노력의 결과이다. 정개개편이란 미명 아래 유권자의 뜻을 배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임에도 이를 반복해서 재정의함으로써 이슈를 유리하게 전환시키려는 보수의 프레임이 민주화세대의 기억 속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 당시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자기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참여자는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운동가의 경우나 현재 생활에 매몰된 모습을 보면서 운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 학생운동가 출신 정치인에 대한 평가

- 그 시대에 옳은 소리하던 사람이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좋게 본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지금 정치인 집단 중에는 학생운동의 바탕이 된 집단이 긍정적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주요한 대학의 학생회장 부회장하던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념적 자기 고백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긍정적이지만, 전에 운동한 것을 훈장처럼 내세우면 안된다. 이한열처럼 앞서서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이데올로기 투쟁이었고, 그걸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민주화세대가 이제 나섰는데 멋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정치적인 검증의 시대가 될 것 같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운동을 정치의 경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87년 당시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국 사회가 발전할텐데 한계로 느껴진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활동했던 게 정치하기 위한 발판이었나 생각한다(49세 여성, 대졸). 정치하려고 운동한 것은 아니지만, 운동한 마지막은 정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름 알려진 것 자체가 소신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48세 여성, 대졸). 정치한 사람 중 소신있게 한 사람은 많지 않다(49세 여성, 고졸). 우리 학번대의 정치인들 많다. 정치를 하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고인 물은 썩는다(51세 여성, 대졸).

- 6월항쟁에 대한 평가나 집단적으로 당시 학생 집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는데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운동한 것을 훈장처럼 내세우면 안된다고 경고한다. 이데올로기 문제, 한계 언급, 실력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보다 훨씬 엄격한 동 세대의 평가이다.
- 발탁 과정에 있어서의 보스정치적 일방성, 사회운동가 출신답지 않게 당내민주화의 기수가 되지 못하는 정치활동, 민생과 개혁을 선도하는 파격적인 의정활동의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학생운동의 혁혁한 역사적 성과에 비해 현재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6월항쟁에 참여했던 동 세대는 비판하고 있다.
- 일부는 추상적으로 정치권 일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치 참여 자체를 소신 상실로 보는 경우도 꽤 있었다. 합리적인 견해는 아니다.

3 ■ 87년 대통령선거의 양상과 이후 정권교체 30년

○ 1987년 대통령선거의 양상

- DJ와 YS의 경쟁 때문에 노태우가 당선됐다. 민주화를 10년 이상 늦췄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욕심이다. 그럴거라고 생각했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민주화되려면 몇 번 찍어라’와 ‘잘 생긴 사람돼야 하고 노태우가 잘 생겼다’란 말 돌았다. 생각이 있는가 싶었다. 오빠들이 김영삼 지지했다(47세 여성, 고졸). 노태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한 듯. 주위에 10만원씩 돌렸다고 들었다(49세 여성, 대졸).
- 개헌은 했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지역감정 들고 호남만 김대중 몰표 나오는 것 보고 슬펐다(49세 여성, 고졸). 인물 괜찮은데 지역감정 때문에 안 밀어준 것도 있다(51세 여성, 대졸)

○ 민주정부 10년의 평가

-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통일의 물꼬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큰틀을 만든 것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공직사회도 군대식에서 업무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상사와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실명제,

성과급 들어왔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국민이 주인이 되기는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 두 대통령 힘들었고 한분 돌아가신 것 안타깝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당시 했어야 할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하부 경제적인 적폐. 실력 없었던지 자만했던지(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5년 단임이라 장기플랜 세우지도 못하고 너무 급했고 시행착오 많았다. 미숙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IMF탈출은 잘 했다(49세 여성, 대졸). 우리는 삼권분립이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과도한 기대를 해 실망한다. 노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아서 좋았다(48세 여성, 대졸). 민주적으로는 많이 발전됐다(51 여성, 대졸).
-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체감할 정도의 큰 변화 없었던 듯(54세 여성, 고졸B). 김대중은 남북관계 개선하고 나라의 브랜드를 높였다면, 노무현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편안한 대화하는 자신감도 보여주고(49세 여성, 고졸). 그걸 욕하는 사람도 많다(47세 여성, 고졸).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정치인과 기자들은 무시했다. 그게 안타까웠다(49세 여성, 고졸). 고졸이라 기득권들이 대통령으로 용납이 안된다는 거였다(51세 여성, 대졸)
- 언론과 불필요하게 부딪친 것은 결말이 좋지 않았다(48세 여성, 대졸). 보수정부와 노무현의 언론 장악은 개념이 다르다(51세 여성, 대졸)

○ 보수정부 10년의 평가

-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개판이었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1번만 찍었었는데 팟캐스트 들어보니 정말 개판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MB 정권의 시작은 사기다. 뉴타운사업, 4대강 토목사업, 광우병 논란. 박근혜정권은 말도 안되는 상황(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MB는 복지예산 다 써버리는 식. 부정의 온상이었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무능력한 정부였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최순실 하나를 통제못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된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박정희 시절부터 최태민 등 치부가 드러난 것. 박근혜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박근혜에게 국민이 배신을 당한 것이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부끄럽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라고 추대한 사람들은 뭐냐는 생각 든다. 치부 알면서 꼭두각시를 그렇게까지 키웠을까?(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이명박은 시장 때 중앙차로가 너무 커서 몰랐다. 이제 박근혜 때 드러난 것이다. 참담하다(49세 여성, 대졸). 이명박은 대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욕심대로 한 것 같다(47세 여성, 고졸). 이명박 때 주가가 좋으니 GDP 올라가지만 이면에는 탄압과 억압과 비리가 잠재된 건 외면했다(49세 여성, 고졸). 박근혜는 실망이다. 그럴 줄 알았다. 일 터진 후 뒤처리에서 실망만 쌓여간다(51세 여성, 대졸). 박근혜는 지우고 싶은 과거다. 부끄럽다(48세 여성, 대졸). 역사를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리더가 되는데 공주 역할을 했으니 탄핵은 당연하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식이 없어 부패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다(49세 여성, 고졸).

- 노무현 쪽이 싫어서 간 사람도 있다. 절대적 애정파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니(48세 여성, 대졸). 누가 되든 자기 밥그릇 챙기는거다. 내가 좋아하고 뽑고 싶은 사람 없다(52세 여성, 대졸). 박대통령 당선됐을 때 딱 하나 좋았던 게 선진국도 아닌데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였다. 나도 직장생활하고 딸을 둔 입장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되길 바랐다(52세 여성, 대졸). 그게 함정이었다. 여성이라는데 점수를 너무 많이 줬다. 자기 발등 짚은 거였다(47세 여성, 고졸).

- 민주정부의 업적은 통일의 물꼬를 대화로 튼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DJ는 IMF 극복했고 나라의 브랜드를 높였고 노무현정부는 탈권위주의가 특징적이다.
- 그러나 적폐청산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서 다 역전되었다. 장기 플랜도, 실력도 없었고 성급해 시행착오가 많았다. 노무현의 언론과 대결은 좋지 않았다. 친노가 싫어서 참여정부 반대한 사람도 있다.
- 보수정부 10년은 드러난 것처럼 개판이었다. MB 정권의 시작은 사기다. 뉴타운사업, 4대강 토목사업, 복지예산 줄이고 기업 친화적이라 세금 줄였다. 이명박은 대의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한 것 같다. 시장 때 중앙차로와 경제 살리기 기대감에 가려 몰랐다.
- 박근혜정권은 최태민부터 치부가 쌓여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치켜세웠다. 무능력해 최순실도 통제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부정의 온상이었다. 일 터진 후 뒤처리에 더욱 실망했다. 지우고 싶은 과거다. 역사를 바꾸는데 역설적으로 기여했다.
- 여성들은 여성 대통령의 탄생에 기대했었다. 이제 너무 참담하다. 국민이 배신 당한 것이다.

4 ■ 촛불집회 평가

○ 6월항쟁과 비교해 가장 인상적인 것

-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애들이 자꾸 또 가자고 했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사람들이 행진할 때 사진 찍히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게 신기했다. 축제였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행진 속에 강력한 파워를 느꼈다. 과거의 희생이 있어 대다수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구나 했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다양한 구성원이 나오니 정권도 손을 못댔을 것. 여론정치도 성숙해진 것이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전경 버스를 닭장차라 했는

데 거기 꽃무늬 스티커 붙이는 것을 봤다.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된 게 감동적이었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A). SNS문화 때문에 중고생도 자발적으로 나오니 비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너무 편안하게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조용히 잘 넘어간 게 기억에 남는다(54세 여성, 고졸B). 과거 비하면 축제다. 거리도 깨끗하게 했고 할머니 손자, 선생님 유치원생, 엄마가 애기도 데리고 왔구요 (49세 여성, 고졸). 누가 질서하면 다같이 외치면서 안전하게 공간 확보한 게 기억에 남는다(51세 여성, 대졸).

○ 촛불집회의 의의와 평가

- 태극기집회 봤는데 노인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게 민주주의의 성숙 아닐까?(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어린 학생들이 어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진짜 이런 장이 없었구나. 이게 정치적으로 실제로 되면 좋겠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가고 싶을 때 가고 빠지고 싶을 때 빠져도 되니 축제였다. 여자 중고생들이 함께 나와서 의사표현하고. 이제 일반화된 시위문화다(49세 여성, 고졸).
- 미국소고기 광우병 때는 살벌했다. 전쟁나는 줄 알았다(54세 여성, 고졸A).

○ 부모로서 자식들이 간다고 할 때 태도

- 가봤기 때문에 자식들이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52세 남성, 대졸, 회사원).
-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려는지 물어보겠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했다(51세 남성, 대졸, 교육직).
- 이번엔 가족이 같이 나갔다(51세 여성, 대졸).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겠다(54세 여성, 고졸 B). 딸이 갔다 왔다고 SNS에 올렸기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잘했다 했다(49세 여성, 고졸).
- 촛불 전에는 딸이 과대표가 돼서 시청에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갔다 왔대서 “시집도 못가고 비디오 찍혀서 면접보러 가면 탈락된다”. 내가 부모가 되니 하지 마라 했다(54세 여성, 고졸).
- 가는 건 좋은데 무작정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게 필요하다(48세 여성, 대졸). 요즘 애들 가란다고 안간다. 자기 생각으로 가지(47세 여성, 고졸). 88년도에 다른 학교에서 한 대외집회에 가봤는데 그 때도 문화집회 형식이었다. 평화로운 문화집회를 망치는 공권력이 이번 촛불에 없었을 뿐 양식에 큰 차이는 없었다(48세 여성, 대졸).

- 촛불의 의미는 축제와 같이 누구도 사진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했고, 행진 속에 강한 파워 느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 부모들은 자식들이 친구끼리 다녀온다고 해도 말리거나 금지하지 않았다. 가족이 같이 나간 경우도 많이 있었다. 87년 당시 부모들이 절대 참가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데모 학생 비난하던 상황과 너무 딴판이다. 이점은 이번 촛불 이외 모든 다른 집회와 차이다. 정권의 대응이 달랐고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의 영향이 크다.
- 집회에 가는데서 끝나지 않고 그에 관해 왜 가는지 등을 아이들과 얘기하면 좋겠다.

5 ■ 민주화운동세대에 대한 평가

○ 6월 항쟁의 주역인 민주화운동세대가 지금도 역할이 있는가?

- 권위적인 세상의 문턱을 낮추는데 지금도 역할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386정치인이 있어 배드민턴 클럽에 자주 오는데 별로 권위적이지 않다(47세 남성, 고졸, 자영업).
- 6월 항쟁 때도 벡타이부대가 있어서 큰힘이 됐다. 50대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촛불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잘못된 게 있으면 가정이 있으니 나서기보다 뒤에서 서포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49세 남성, 대졸, 회사원B).
- 현 대통령을 필두로 50대 정치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으로 검증 받으며 함께 갔으면 좋겠다(54세 남성, 이후 대졸, 자영업).
- 1인 가구가 40%다. 우리 자식세대는 똑똑하지만 개인주의적이어서 고립화되고 취업도 힘들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49세 남성, 대중퇴, 자영업).
- 이제는 영호남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 갭이 너무 커졌다. 이걸 없애야 한다. 우리가 세대간 가교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51세 여성, 대졸).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보살펴야 한다. 젊은애들은 자기 살기도 어렵다. 노인들이 토론도 하고 노인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386정치인이 할 일이다. 이제는 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49세 여성, 고졸).
- 원로가 없어져 가는 지금 우리가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에 기대하지 말고 자생력 가진 소모임 많이 만들자. 좋아하는 국회의원 찾으면 후원해주자. 시민으로서 필요한 일이다(48세 여성, 대졸). 태극기부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도 끈대가 되지 말아야겠다(49세 여성, 대졸).

- 현재도 권위적인 세상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 6월 항쟁 때의 넥타이부대처럼 50대인 우리가 사회의 모순에 항거하는 젊은이들 서포트하고 자식세대 어려움 극복하는데 도움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세대간 갭이 너무 커졌다. 노인문화 만들어 우리가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우리가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끈대가 되지 말아야 겠다.



제4장

결론



결론

1 ■ 결론과 제언

이 죄담회의 목적은 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당시 항쟁의 주역인 민주화운동 세대가 할 일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갖는다.

1) 6월 항쟁

- 군사정권 아래에서 증장년층은 대부분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빨갱이라고 욕하고 비난했으나 학생이 앞장서고 야당과 시민이 합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기여했다.
- 집회와 시위는 예전부터 평화로웠으나 물리적 진압을 하니 충돌이 생기고 방어적 폭력이 나왔다. 이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언론에 의해 다시 이용되었다. 이렇게 젊은 시절 전쟁 체험에 더하여 반복적인 반공 논리의 학습효과가 이들을 극우적 세계관으로 몰아갔다.
- 민주화운동세대의 지지 속에 탄생했던 미숙한 민주정부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할 바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촛불항쟁의 힘으로 탄생한 새로운 민주정부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 탄생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촛불 집회

- 박근혜 탄핵 이후 사회분위기가 바뀌어 촛불집회는 물리적 진압없이 전국민 대다수가 응원했고 추운 겨울과 야간임에도 평화적으로 진행되 국정농단세력을 척결하는 힘이 되었고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 6월 항쟁 때 학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대 부모들은 자식들의 집회 참여를 칭찬했고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시대의 변화, 세대의 변화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 젊은 세대가 청년실업과 정치적 소외를 넘어 역동적인 복지국가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민주화운동세대

- 6월 항쟁은 민주화운동세대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세대 형성 사건이었다
- 이들은 이제 반 이상이 50대가 되었으나 연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세대로서, 힘들어하는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 역할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
- 세대간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세대간 가교로서 역할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냉전시대의 수구적 반공논리를 극복하는 세대로서 역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세대에게 크게 신뢰받고 있지 못한 동 세대 정치인들에게도 시대정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FGI 세부 진행 가이드

■ 전체 소요시간 : 약 2시간 내외

Warming-Up 단계

5분

● 좌담회 모임의 진행/배경 소개

✓ 진행자 인사 후

“이번 좌담회는 87년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세대가 모여서 당시를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는 배경을 설명.

전화나 면접 여론조사와 달리 집단토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견들을 파악하는 것도 조사의 한 방법이고, 이것을 FGI라고 부른다. 즉 여론조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고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편의상 녹음한다. 휴대폰은 꺼달라.

✓ 진행 방식과 진행시 주의할 점

- 평소 친구나 동료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기분으로 평소 생각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됨
- 차례대로 얘기하면 되고 할 얘기가 없는 경우에는 안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계속 참가 안하시면 안 된다.
- 진행자가 사전에 정리해온 알고 싶은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 됨. 남의 얘기를 끊으면 안된다.
- 너무 한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주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할 때는 진행자가 적절히 끊을 것임

● 참석자 소개

- ✓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성명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나이, 사는 곳, 자녀가 몇이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서로 소개한다.

도입부질문 : 참석자 관심 분야

5분

- 1987년 6월 당시 연령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 당시 거리에서 일어났던 집회와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참가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구경만 하셨나요?

본 질문 : 당시 6월항쟁의 양상에 대한 인식

20분

- 30년전 6월항쟁의 양상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직접 경험한 것이 있나요?
- 학생 데모대의 양상
 - 전경과 사복경찰의 태도
 - 구경하던 시민들의 태도
- 당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
- 5공화국과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정을 잘 이끌었다고 보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 **폭력적 시위 양상에 대한 원인과 불가피성 평가**

-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데모에서 방어적 폭력이 필요한가요?
- 30년전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본 질문 : 당시 6월항쟁의 의의에 대한 인식

20분

● **30년전 6월항쟁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야당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시나요?
- 당시의 재야와 학생은 어떻게 보시나요?
- 자기 젊은 시절의 가장 충격적이고 중대한 정치적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386정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질문 : 87년 대선의 양상과 평가

5분

● **1987년 대통령선거의 양상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 여당의 노태우후보에 대해서
-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후보에 대해서

본 질문 : 10년간의 민주정부에 대한 인식

10분

● 민주정부 1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본 질문 : 10년간의 보수정부에 대한 인식

10분

● 보수정부가 이끈 10년간의 국정에 대한 회고

- 17대 이명박 정부
- 18대 박근혜 정부

본 질문 :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

25분

●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

- 직접 참가해보셨나요?
-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30년전과 다르게?

●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아들 딸들이 촛불집회에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이유는?

● 민주화운동세대는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민주화운동세대의 시대정신이 민주화였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 자식세대인 청년들에 대한 의견

- 청년들이 경제적 곤란과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마무리 질문

-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한 내용 중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201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FGI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7년 12월 1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연락처 전화번호 02-3709-7618
홈페이지 <http://ikd.kdemo.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표지원안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ISBN ISBN 979-11-87593-48-5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전화: 02)3709-7618 팩스: 02)3709-7520

